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12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기능성 보리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 -1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맥주보리 재배면적 급감… 기능성 색깔 보리 개발 주목-4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용도별 보리품종 생산·가공기반 조성-6면	제주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기고] 감귤 조기 발아 예상에 따른 정지 전정 방향-14면(현광철)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기고] 지금 농업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14면(강성민)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기고] 오늘도 안전농업하세요-14면(강경안)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겨울철 이상기후에 이어 또 ‘비’ -4면	-	제민일보
○	사과·배·감귤 등 물가 상승 주범 지목에 농민들 한숨만-5면	-	제주매일
○	제주감귤 가공품, 안정적 판로 확보 기대-6면	-	제주일보

(제민일보: 2024년 3월 12일)

○ “기능성 보리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 -1면

“기능성 보리로 ‘세마리 토끼’ 잡는다”

용도별 생산단지 조성 일환

제주도가 기능성 보리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 월동채소 수급조절, 경관자원 확충 등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

술센터는 11일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기능성 색깔보리 특산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보리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해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

산·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해 색깔보리를 생산하고 가공을 위한 도정기, 분쇄기 등 시설을 갖추 예정이다.

기반조성 완료후에는 색변화가 적은 보릿가루와 색깔보리 가공제품을 개발해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하고 활성화해 나간다.

기능성 색깔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있다.

도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색깔보리 원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비해 4.3배, 맥주보리 원곡과 비교해서는 20배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추산했다. 제민일보 11

(제주매일: 2024년 3월 12일)

○ 맥주보리 재배면적 급감… 기능성 색깔보리 개발 주목-4면

맥주보리 재배면적 급감…기능성 색깔보리 개발 주목

2019년 2431ha서 1608ha로 ‘뚝’…용도별·품종 시범사업 추진

그 동안 제주지역 농산물 수급조절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온 맥주보리가 낮은 소득으로 지난 4년 사이 재배면적이 34% 감소한 반면 그만큼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난 가운데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보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도내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2019년 2431ha에서 2023년 1608ha로 2019년과 비교해 66%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가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기능성 색깔보리 특산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보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기능성 색깔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있어 이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색깔보리 원곡으로 판매했을 때에 비해

4.3배, 맥주보리 원곡 대비 20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해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해 색깔보리를 생산하고, 가공을 위한 도정기와 분쇄기 등의 가공시설을 갖추 예정이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색 변화가 적은 보릿가루와 색깔보리 가공제품을 개발해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하고 활성화해 나가며 재배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매일 4

(한라일보: 2024년 3월 12일)

○ 용도별 보리품종 생산·가공기반 조성-6면

용도별 보리품종 생산·가공기반 조성

재배단지로 색깔보리 특산화

제주도가 기능성 보리품종을 생산·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용도별 국내 육성 보리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기능성 색깔보리 특산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보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맥주보리는 비교적 낮은 소득으로 도내 재배면적이 4년 사이 34%가량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늘어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2019년 2431ha에서 지난해 1608ha로 크게 줄었다.

센터는 국내산 보리품종에 기능성을 높여 부가가치 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색깔보리 가공 시 10a당 198만1000원으로 원료곡 생산·판매 시 46만1000원에 견줘 월등하다. 맥주보리는 10만원선에 불과하다.

이에 센터는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해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해 색깔보리를 생산하고, 가공을 위한 도정기와 분쇄기 등의 가공시설을 갖추 예정이다.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색 변화가 적은 보릿가루와 색깔보리 가공제품을 개발해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하고 활성화해 나가며 재배면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라일보 6자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12일)

○ [기고] 감귤 조기 발아 예상에 따른 정지전정 방향-14면

감귤 조기 발아 예상에 따른 정지전정 방향

앞으로의 기상예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감귤나무의 봄순 발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전정을 일찍 시작하려고 하지만 3월 말부터 4월 상순 발생할 수 있는 늦서리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전정을 앞당기면 발아가 더 빨라져 새순과 꽃봉오리에 늦서리 피해를 볼 수 있다.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시설하우스는 주야간 천측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 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추고 전정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서리 상습 피해 지역의 노지감귤원은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 흐름을 좋게 하고 전정 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 약전정한다. 중산간 지역은 3월 하순~4월 상순부터 최대한 늦게 전정하고 나무 수세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지난해 과다착과 한 나무와 수확이 늦어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전년도에 봄순을 최대한 남긴다. 가벼운 수음전정과 과경지 처리로 수세 약화를



현광철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팀장

예방하고 가지를 붙여서 자르는 복합전정으로 충실한 봄순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올해 감귤이 많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나무는 수형을 교정하고 복

잡한 가지를 정리한다. 각도가 45~50도인 여름순 가지에서 봄순 마디 윗부분을 절단전정해 충실한 봄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달렸던 가지를 활용해 올해 봄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비지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 20ℓ에 요소 30~40g을 물에 녹여 10일 간격으로 3~4회 엽면시비 해주면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가 따뜻해지며 발아뿐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찰 및 사전방제 등으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뉴제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3월 12일)

○ [기고] 지금 농업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14면

기고 **지금 농업현장은 봄비가 달갑지 않다**

제주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육성팀장



강 성 민

봄비는 새싹을 돌아나게 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새해가 시작돼 두 달 사이 비가 내린 날은 31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2일 많았고, 강우량도 185mm 더 많았다. 지겹게 내린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다.

제주지역 봄철 특새작목으로 정착한 초당옥수수는 밭에 옮겨 심는 시기가 다가왔으며, 미니단호박은 씨앗을 파종한 후 육묘 관리가 한창이다. 그러나 최근 잦은 비 날씨로 옥수수가 제때 심어지지 못하고, 육묘 중인 미니단호박 모종도 일조량 부족으로 웃자라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몇 가지 당부코자 한다.

초당옥수수는 육묘 25일을 넘겨 심으면 수확량이 13% 감소하므로 어렵더라도 맑은 날이 이어지는 시기를 택해 빨리 심어야 한다.

육묘 중인 미니단호박은 고온 다습하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온도는 주간 20~24℃, 야간 15℃ 내외로 관리하고, 물은 오전에 적게 주어야 웃자람과 모잘록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돌풍이 자주 부는 3~4월에는 터널비닐이 파손되지 않도록 흙을 잘 덮어주고, 호우나 강풍이 지난 후 보강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터널비닐이 파손되면 외부의 찬 공기로 인해 생육이 멈추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4월이 되면 터널 안에 있는 초당옥수수 줄기를 밖으로 꺼낸 후 10a당 요소를 40~60kg을 주어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니단호박은 밭에 옮겨 심어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터널비닐을 덮은 다음 90cm 간격으로 환기 구멍을 뚫어야 고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6월이면 만날 수 있는 제주 초당옥수수와 미니단호박. 세심한 생육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길 바란다. 3.12. 제주매일 14

(제민일보: 2024년 3월 12일)

○ [기고] 오늘도 안전농업하세요-14면

독자기고



강 경 안

최근 도내 시설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겨울철 가정내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시설하우스 화재는 1월부터

12월까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시설하우스 화재는 총 116건이다. 전기적 원인 58건, 부주의 32건, 기계적 원인 8건, 화학적 원인 1건, 원인미상 17건이며 사망이 4명, 재산피해는 1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도내 비닐하우스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이었으며 노후 및 비규격 전선 사용, 전기 콘센트나 전기배선의 먼지에 의한 화재, 부주의, 불티가 가연성 물

질에 떨어져 발생하는 화재 등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설물을 정비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 실천사항을 숙지해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우스 비닐을 교체할 때 차단기를 내리고 비닐을 교체해야 하며 배전함 등에 거미줄이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작은 불티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콘센트나 전기기구는 물이나 습기를 먹지 않도록 마개를 덮어 보호하고 누전차단기 고장 여부를 확인해 두자.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필히 교체해야 한다. 난방기 주변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으며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배전함 속에 패치형 자동소화기를 붙이는 것도 좋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안전수칙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농업인과 함께 안전문화 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안전농업을 위한 안전의식 향상, 안전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3.12.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14

(제민일보: 2024년 3월 12일)

○ 겨울철 이상기후에 이어 또 ‘비’ -4면

겨울철 이상기후에 이어 또 ‘비’

12일 저녁까지 예보

예상 강수량 10~30mm

제주에 12일까지 또 비가 내리면서 요란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겨울철 많은 강수량에 이어 또 다시 비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12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11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다만 11일 늦은 밤부터 12일 아침까지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했다.

11일 오후 5시 기준 현재 어리목 11.5mm, 서귀포 9.3mm, 고산 7.9mm, 성판악 6.0mm, 제주 4.8mm, 성산 3.5mm 등의 일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후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30mm다. 제주도 산지의 경우 예상 적설량은 2~7cm(많은 곳 10cm 이상)이다.

기온은 13일까지 평년(최저기온 4~7도·최고기온 12~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7~9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가 되겠으며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가 되겠다.

앞서 제주지역의 지난 겨울철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2번째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제주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겨울철 제주도 기후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 강수량은 338.5mm로 평년(184.7mm)보다 153.8mm 많았다. 강수일수는 43.8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평년 대비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고 남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과 강수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양경익 기자

3.12.

제민일보 4

(제주매일: 2024년 3월 12일)

○ 사과·배·감귤 등 물가 상승 주범 지목에 농민들 한숨만-5면

사과·배·감귤 등 물가 상승 주범 지목에 농민들 한숨만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 113.75로 전년 동월 대비 2.4% ↑
물가 가중치 1위 전세에 비해 체감도는 크지만 실질적 영향 '미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두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 주범으로 몰리며 또 다시 농민들이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지난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제주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5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를 두고 농산물을 물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사과(89.8%), 배(76.9%), 귤(51.7%) 등 큰 폭으로 상승한 농산물 가격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고, 오렌지, 바나나 등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요 대책이 농산물에 집중되며 3.12. 제주매일 5.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책임을 농산물에

만 몇몇우는 건 곤란하다. 통계청의 합정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에는 품목별 가중치가 적용된다. 2022년 기준 가중치(총지수 1000) 상위 품목은 1위 전세(54.2), 2위 월세(44.9), 3위 휴대전화료(29.8) 4위 휘발유(24.1), 5위 공동주택관리비(21.8) 등이다. 이에 비해 금(금)·사과로 일컬어지며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십자포화를 맞은 사과의 가중치는 2.3으로 20위 안에도 없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의 핵심 수칙인 기여도를 눈여겨봐야 한다. 품목별 가중치에 증감율을 곱해 산출하는 것으로 결국 기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올해 2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 기여도는 서비스가 1.05%p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0.66%p로 그 다음이며 공업제품 0.65%p, 전기·가스·수도 0.09%p를 기록했다. 결국 농산물이 가격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기엔 한계가 있다.



제주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매대 위 사과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플러스의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보고서는 "농식품 물가는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지만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지 않고 가중치 또한 대부분 0.3% 미만으로 매우 낮다"라며 "순간적 체감도가 클 수 있지만, 실질적 영향은 짧게 지속되거나 미미할 수 있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 물가 상승을 부정적으로

만 바라보게 되면 생산자의 소득과 생산유인이 잠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상호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보도되는 농식품 물가 관련 이슈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 농식품 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홍보하면서 중장기적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철 기자

(제주일보: 2024년 3월 12일)

○ 제주감귤 가공품, 안정적 판로 확보 기대-6면

제주감귤 가공품, 안정적 판로 확보 기대

도, 에프비홀딩스·제주TP와 기업 신설투자 협약 체결

2026년까지 400억원 투입...연구·사업 등 생산 인프라 조성

과채류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국내 벤처기업인 ㈜에프비홀딩스가 제주감귤 가공과 판매 등을 위해 2026년까지 제주에 400억원 이상을 신설 투자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에프비홀딩스, 제주테크노파크와 기업 신설투자 협약을 맺었다.

㈜에프비홀딩스는 글로벌 식품기업인 썬키스트의 과채 가공품 생산·유통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으로, 마스트벤처(주관매주) 자격을 갖춰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등에 제품을

3.12. 제주매일 6.다.

제주일보 6.다.

㈜에프비홀딩스의 투자를 지원하고 제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산·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에프비홀딩스는 2026년까지 제주에 총 400억원 이상의 신설 투자와 도민 채용을 통해 6차산업과 연계된 감귤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제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존,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동반 성장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감귤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위해 ㈜에프비홀딩스와 협력하고, 생산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에프비홀딩스, 제주테크노파크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감귤 가공 및 판매에 대한 기업 신설투자 협약을 맺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감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지금 협약식이 이뤄져 매우 뜻깊다"며 "제주감귤 6차산업화의 발판이 돼 제주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 ㈜에프비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장 신설을 넘어 감귤농업의 4차 산업혁명이자 제주도

의 진정한 6차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라며 "제주도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감귤농업의 혁명적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귤농가들의 소득 증진, 안정적 판로 확보는 물론 도내 연관기업과도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공동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재병 기자